

(주)대우로지스틱스

“제3자 물류사업의 국내 선두주자”



대우로지스틱스 안용남 사장

이번에 한국선주 협회 신규회원사로 가입한 (주)대우로지스틱스는 IMF 금융 위기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던 암울한 시절인 1999년 5월 EBO(Employee Buy Out) 방식에 의

하여 (주)대우로 부터 독립한 100% 종업원 지주회사이다.

20여년 이상 (주)대우 물류팀에서 대우그룹 물류 업무 전반을 관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운을 비롯하여 3자물류, 창고, 통관 및 복합운송주선업에 진출하여 종합물류 기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One Stop Logistics Service 제공, 대한민국 제1의 종합물류 기업 지향,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을 모토로 지난 1999년 5월1일 설립된 (주)로지스틱스는 해운보다는 제3자 물류사업 등 종합물류 회사로 유명하다.

동사는 설립 이후 국내외 유수의 주요 선주 및 용선주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박의 용선, 운항 및 해운 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화주와 화물에 가장 적당한 최적의 선박을 적시에 용선하여 운영함으로써 운항 시간과 화물 운송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며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 하게 운송함으로써 화주와 선주에게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자체 선박을 보유, 운영 중이

며 장차 보유 선박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주력 운송화물은 곡물, 철강, 시멘트 등이다.

또한, 기업의 효율적인 로지스틱업무 지원을 위한 제3자 물류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서 고객인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객의 화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고객의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Freight Forwarding Service는 전 세계에 걸친 해상, 항공, 육송 화물은 물론 Consolidation Cargo 에 이르기까지 운송, 통관, 보관 및 Container 작업 등 물류 전 단계를 아우르는 Total Logistics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주)대우로지스틱스의 중장기 사업목표는 토탈 물류솔루션 제공능력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 위주의 사업전개로 물류업계 최고의 기업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사는 해운을 비롯하여 3자물류, 창고, 통관 및 내륙운송 등 물류 업무 전반을 One Stop으로 Service하며 지속적인 물류 Infra 투자를 통하여 대한민국 제1의 일류 종합물류기업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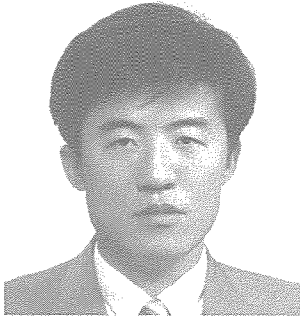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인천과 양산에 보세창고를 운영 하는 한편 부산과 인천지사는 자체 통관 기능을 갖추어 고객의 다양한 Needs에 부응할 수 있게되었고, 해운 및 복합운송주선업의 성장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물류전반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동사가 짧은 기간에 이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직원간의 화합과 주인의식,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 그리고 안 사장의 뛰어난 경영전략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용남 사장은 『우리 회사는 종업원지주회사로서 전종업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물류기반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신뢰가 가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해운(주)

“고객 중심 서비스에 최선”



SW해운 김경득 사장

한국선주협회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SW해운은 지난 93년 12월에 설립된 중견 해운기업으로서 러시아산 원목수송과 부정기선영업 등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주축으로 선박

관리업과 국제해운대리점업을 겸업하고 있다.

설립당시 선우해운으로 출범한 동사는 2002년 9월 회사명칭을 현재의 SW해운으로 변경했으며, 사선 3척을 비롯하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5척, 정기용선 2척 등 모두 3,000~2만DWT급 10척을 러시아항로를 비롯하여 일본-한국-중국-서남아시아항로에 직접 투입하여 운항중이다.

특히, SW해운은 극동 러시아의 원목수출업의 대부인 '달레스프롬'과 일본 등 동남아 주요 종합상사간의 원목수송을 위해 연간 40만CBM에 이르는 러시아산 원목을 평균 14척의 특수형태 선박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함께 장·단기형태로 선박을 용선하여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말레이시아산 원목을 한국과 일본, 중국 등 하주들이 원하는 곳으로 적기 수송하고 있다. SW해운은 또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와 서남아시아항로에 부정기선을 투입, 철재품을 포함한 일반화물선을 수송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석탄을 비롯하여 설탕, 시멘트 등 벌크화물 수송시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동사는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대북지

원 쌀 수송에도 참여하는 등 정부의 정책물자를 수송하기도 했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 중국산 규사 20만톤을 대한통운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 유리공업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2002년 6월에는 말레이시아 무역업체와 연간 러시아 원목 60만 CBM을 일본, 한국, 중국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03년 3월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철강기업의 철재운송에도 참여, 나호드카/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철재 20만톤을 수송하는 등 해외 화주들과 장기 수송 계약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동사는 러시아의 아무르ship 소유선박의 국내대리점업무는 물론, 국내외의 다른 선주들의 대리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994년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관리업 면허를 취득, 선박과 선원, 해상보험 부보 등 선박관리에 있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W해운의 강점은 그동안 축적된 원목수송시장에서의 풍부한 노하우와 국내외 종합상사 및 무역회사 등 주요 고객들로부터의 두터운 신뢰감, 그리고 직원들간의 화합으로, 동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모든 서비스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전세계 어느 곳이든 고객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고객중심의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W해운을 이끌고 있는 김경득 사장은 지난 1983년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과 함께 영진해운, 현대상선, 삼선해운 등에서 해상직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1996년 선우해운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2000년 7월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는 등 20여년간 해운업계에 몸담고 있는 정통해운인이다.